

두산중공업(주)

전국 품질분임조 대회 10연패

두산중공업(사장 尹永錫)이 국내 기업들 가운데 최초로 전국 품질분임조 대회를 10연패했다.

지난 9월 4일부터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제27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이 회사 중재관공장의 '실천하는 사람들' 분임조(분임장 朴奉相)가 대기업부문에 경남대표로 출전, 대통령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 해까지 공기업부문에서 9연패를 이어온 두산중공업은 올해 민영화된 대기업 부문에 처음 출전, 또다시 1위를 차지함으로써 이 회사 품질분임조 활동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 '실천하는 사람들' 분임조가 발표한 주제는 '복수기 번들조립 방법 개선으로 공수절감', 울진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열교환기를 제작하며 튜브 운반용 지그(Jig, 보조기구)를 개선하고 표준서를 작성하는 등 연간 1억원 규모의 원가절감 실적을 거둔 내용이다.

협회 전문위원과 대학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실천하는 사람들' 분임조가 통계적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주제선정이 적합했다"며 금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회사 터빈공장 청송분임조

(분임조 柳淳哲 반장)는 설비개선사례부문에 'TPM 활동으로 로타 밸런싱 공수 절감'이라는 주제로 참가해 동상을 수상, 두산중공업에서 출전한 두팀이 모두 입상했다.

청송분임조의 TPM 활동은 활동 초기, 연 평균 2,970시간이었던 설비고장시간을 현재 210시간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원가절감액도 2억원이 넘어서는 등 최고 수준의 설비개선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전KDN(주)

'북경북광전자집단'과 협력의향서 체결, 대 중국시장 진출 본격 시동

한국전력의 정보통신 자회사인 한전KDN(대표 鄭然東)은 지난 9월 10일 중국의 방송·통신장비 생산업체인 북경북광전자집단유한책임공사(총재 韓光)와 두 회사 사이의 협력파트너 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날 조인식에서 △합작 프로젝트 사업추진 △기술교류 및 연수 △공동 시장조사 및 연구개발 △한국과 중국시장 진출시 상호협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북경북광전자집단유한책임공사는 방송장비, 통신장비, 유/무선 전송장비 등을 생산하는 종업원 3,000여명의 업체로서 중국 베이징 디지털 라디오

및 TV 등 7개 관계 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이 회사는 인텔리전트빌딩, 초고속인터넷, 케이블 TV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사업 분야에서 두 회사간의 합작 또는 공동사업 추진을 요청했다"면서 이번 새 협력파트너 확보를 통해 중국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전KDN은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디지털 본 방송 서비스에 대비, 디지털 방송 및 멀티미디어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고 있다.

한전KDN은 최근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발주한 방송공개홀 방송장비 및 구매 설치사업을 15억원에 수주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에서 발주한 경정장 실험방송장치 사업을 20억원에 수주했으며 지난 5월에는 국악방송 남원FM중계소 방송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또 한전KDN은 방송전문 기술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 공동 마케팅을 통해 △(주)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과 방송설비 구축사업 12억원을 비롯해, △주식회사 GPIK에 전송 시스템 설치공사, △마산 동양유선 방송사와 전송 시스템 설치공사, △충주지역의 (주)설성방송과 전송장비 납품 8억원 등 모두 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전KDN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대학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주 및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 중계유선에서 종합유선으로 전환 승인된 케이블TV 방송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DMC(Digital Media Center)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전KDN은 올해 디지털 방송시장에서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2001 경영자 세미나 및 제2회 전국회원 등반대회' 개최

한 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는 지난 9월 6일 전북 무주 리조트 티볼호텔 대회의장에서 전기공사인의 한마당 축제인 '2001 전기공업 최고경영자 세미나 및 제2회 협회 장기 전국회원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측 내빈으로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장, 김용수 한국전기신문사사장, 남병주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을 비롯한 2천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귀빈으로는 박광태 국회사자위 위원장, 김동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 강재수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한국중 한국전력 영업본부장, 김정

웅 무주군 부군수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김창준 회장은 개회사에서 "협회는 분리발주의 정착, 인정기술사제도의 도입, 입찰제도의 개선, 기술경영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하고 "이러한 노력은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며 그 결과 국내 전력산업정책을 입안하고 감시하는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중책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러한 중책을 맡은 만큼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협회의 위상을 보다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재수 전북 정무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애쓰는 전기공업 종사자들에게 200만 도민을 대표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산 좋고 물 좋은 무주에서의 회원세미나를 전기로 발전하는 전기공업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중 한전 영업본부장은 축사에서 "전력산업의 최일선에서 송변배전 설비 유지관리에 고생하는 1만여 공사업체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하고 "전력산업도 이제 서비스 산업으로 들어선 만큼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사업체가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광태 산자위원회장이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전문경영인의 역할', 김동원 자원정책실장이 '전력산업정책방향'에 대해 강연, 많은 갈채를 받았다.

세미나에 이어 열린 만찬에서 2천여 회원은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한 사람의 이탈자도 없이 전원이 참여, 전기공사인의 단합과 우애를 다지며 '전기공사인 축제의 한마당'을 이뤘다.

이어 7일 설천봉에서 열린 협회장기 등반대회에서 종합우승은 남부지회, 종합준우승 동부지회, 3위 경남지회, 4위 광주지회, 5위 중부지회가 각각 차지했다.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안전의 날 동탑산업훈장에 김덕지 사장 영예

원 자력연료주식회사의 김덕지(金德之) 사장이 지난 9월 6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7회 원자력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훈하였다.

김덕지 사장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재직하는 동안 국가 전력산업의 발전과 원자력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한전원자력연료(주) 감사 및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표준형 및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용 개량연료 개발, 무결합 연료 생산, 손상연료 수리 적기 실현, 국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국제품질규격(ISO 14001) 획득 등 원자력의 진흥과 안전성 증진, 경제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이날 기념식은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원자력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으며, 원자력 종사자의 다짐을 담은 '원자력안전현장' 선포식도 함께 가졌다. 원자력안전의 날은, 원자력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원자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95년 과학기술부에서 제정한 이래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직원워크숍 개최

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병설)은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개발원에서 2001년도 직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기조합 전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이병설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는 조합 분위기를 쇄신하고 회원사와 집행부간의 깊은 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형식적으로 사업과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조합직원들이 3

개분임조를 편성, 업무의 효율적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LG산전(주)

태국서 200억원 규모 철도신호 제어시스템 수주

LG산전(대표 : 金正萬 www.lgis.co.kr)은 최근 태국 철도청(Sate Railway of Thailand)이 3차에 걸쳐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철도신호제어 프로젝트 중 「신호통신 1차 프로젝트(Signalling & Telecommunication Double Track Project)」를 수주, 200억원 규모(약 1천 6백만弗)의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2, 3차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LG산전은 국내업체 중 처음으로 태국 철도신호제어시스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는 2003년까지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을 태국 방콕(Bangkok)-반파치(Ban Phachi) 구간 철도신호통신 프로젝트에 공급하게 된다.

LG산전의 철도신호제어시스템은 열차 안전운행 및 열차운행 효율화에 필요한 첨단제어설비로, 이미 미얀마, 말레이시아, 터키 철도청 등에 공급한 바 있다.

LG산전 관계자는 "이번 1차 프로젝트 수주로 이 달에 실시될 예정인

750억원 규모의 2차 프로젝트와 280억원 규모의 3차 프로젝트 입찰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LG산전은 이번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동남아, 서남아, 중동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태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LG산전은 최근 웹(Web)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수입 구매시스템인 Web-OPS(Overseas Purchasing System)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LG산전 전 사업장과 연계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해외 공급업체와 각종 구매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은 물론 자재 발주, 주문부터 입고, 금융, 재경처리까지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B2B 시스템이다.

해외 수입 구매시스템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를 통해 은행, 상공회의소 시스템과 상호 연동되며 송·수신되는 서류는 인증효과가 있어 수출입 무역 서비스기관의 구매 및 무역 업무 프로세스를 웹상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전문기관의 인증이 필요없으며 비용이 발생치 않는 Web-EDI를 통해 관세사, 운송사, 보세운송업체 등과 인터넷상으로 자유롭게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된다.

공장 생산시스템과 재경시스템 등 전사시스템과 연계된 이 시스템 구축으로 해외 공급업체는 LG산전의 월별 자재 소요계획뿐만 아니라 6개월간의 예상 자재 소요량을 파악할 수 있어 자재 납기를 원활히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업무 담당자는 일일 할당된 업무와 미완료 업무에 대한 수시 체크 기능이 있어 업무 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

LG산전은 이 시스템 가동으로 품질 예방은 물론 기존에 자재를 구매하기 까지 30일 걸리던 시간을 6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약 8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원전-일반사업장 근무환경 비교 연구

한 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원자력발전소와 일반 산업시설의 근무환경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작업을 지난 달부터 11월말까지 동아대 산업보건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근무여건을 타 산업설비와 비교 연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울산지역의 일반 산업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고리원자력발전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비교 조사함으로써 각 분야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동아대가 조선 석유화학 등 일반 사업장을, 원자력문화재단이 고리원전을 대상으로 각각 조사하며, 종합비교분석은 동아대가 수행한다.

이와 관련 원자력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원전의 근무여건과 안전관리 실태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전 근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사항과 대안도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품질경영 우수업체 공장방문단 파견

한 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조충휘)는 회원사의 품질향상 도모와 기술정보 습득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회원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30여명으로 공장방문단을 구성하여 국내

품질경영 우수업체의 공장방문을 실시했다.

지난 '92년 중전업계의 품질 향상 및 유대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 행사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2002. 7. 1) 및 업체의 제품 품질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신청이 쇄도하였다.

이번 행사의 일정은 9월 19일 차단기, 개폐기 제조업체인 (주)비츠로테크안산공장 견학을 시작으로 국내 최대 전기절연물을 생산하는 성원전기공업(주) 화성공장, 9월 20일 최고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지향하는 삼성전자(주) 수원공장, 충남 당진의 환경친화형 발전소인 당진화력발전소 견학 후 태안반도로 이동, 방문단 일행을 대상으로 “품질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마지막 날인 9월 21일에는 오전에 태안국립관광공원을 둘러 잠시 휴식을 취하고 대산으로 이동하여 민간발전소인 현대중공업(주)의 대산발전소를 견학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특히 각 분야에서 선두주자임을 자처하는 이들 업체의 첨단생산설비 및 품질경영시스템을 직접 보고, 체험하여 선진 품질경영기법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정보를 배움으로써 자사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 사업의 목적인 회원사 및 기업간 정보교류 및 친목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